

2025

ART MARKET REPORT

2025년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 |
|--------------------------|----|
| 개요 | 1 |
| 경제상황 | 2 |
| 미술시장 | |
| 국내경매 | 3 |
| 해외경매 | 12 |
| 경매이슈 | 17 |
| 시장이슈 | |
| 2025년 미술시장 총정리 | 20 |
| 2026년 미술시장 전망 | 22 |
| 2026 주요 아트페어 일정표 | 24 |
| 2026 주요 미술전시회 일정표 | 27 |
| 2026년 주목해야 할 10명의 국내 예술가 | 28 |
| 2026년 주목해야 할 10명의 해외 예술가 | 29 |
| 카이 인사이트 | 30 |
| 참고 및 인용자료 | 31 |

개요

Outline

2025년 미술시장은 팬데믹 이후의 과열이 완전히 가라앉은 자리에서 시장의 '진짜 체력'을 확인하고 구조를 재편하는 냉정한 조정기였다. 세계 경제가 3% 안팎의 저성장과 해소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어가는 동안 미술시장 내의 자본 역시 더욱 신중하고 까다로운 경로를 택했다. 한국 경제 또한 수출 회복과 내수 부진 사이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이는 미술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중산층과 신규 컬렉터의 진입은 위축된 반면, 상위 자산가들은 '검증된 가치'로 불리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25년 미술시장은 지표상으로는 '회복'의 신호를 보냈지만, 그 내막은 모든 영역이 함께 성장하던 과거와는 달랐다. 글로벌 경매 시장은 크리스티·소더비·필립스 등 메이저 경매사가 내놓은 초고가 걸작과 단일 소장품 컬렉션 덕분에 반등에 성공했으나, 투기성 질은 초현대미술이나 중저가 시장은 여전히 혹독한 가격 조정을 겪어야 했다. 국내 시장 역시 메이저 경매사가 블루칩 작가 위주로 실적을 방어하는 동안 중소 경매사와 갤러리들은 거래 감소와 구조조정이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며 시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주목할 점은 시장의 체질 변화다. 온라인 경매는 폭발적인 성장세는 꺾였지만, 중저가 작품과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진입 통로로 자리 잡으며 구매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반면, 미술품 담보 대출의 연체율 증가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묻지마 투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다. 이제 컬렉터와 갤러리 모두 확장을 멈추고 내실과 효율, 그리고 작품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질적 성숙'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다가오는 2026년은 '극적인 반등'보다는 '조용한 회복'과 '철저한 선별'의 해가 될 전망이다. 경제 지표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시장의 온기가 모든 곳으로 퍼지기보다는 인상파·근대·올드 마스터 등 역사적 가치가 확고한 영역과 잘 준비된 블루칩 작가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Z세대의 부상, 프라이빗 세일의 확대, 에스테이트 발굴 등 새로운 기회와 문도 함께 열리고 있다.

2024년이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현실을 '인정'해야 했던 해였다면, 2025년은 어떤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해였고, 2026년은 변화한 환경 속에서 각 주체의 선택이 유효한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의 데이터를 복기하고, 2026년 한국 미술시장이 나아가야 할 생존과 도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제상황

Condition

2025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분절과 통화 긴축 여파로 '잠재 성장률을 밀도는 성장'과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된 해였다. 글로벌 성장률은 3% 수준을 유지했으나, 주요국은 관세 장벽과 공급망 재편 비용으로 투자 위축을 겪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고금리와 물가 피로감이 민간소비와 투자를 짓누르며 연간 성장률은 1% 안팎에 그쳤다. 물가는 2%대로 안정되었으나,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했고, 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회복을 지연시켰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모색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OECD와 IMF 등은 한국 성장률이 1.8%~2.1%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호조가 기업 실적과 실질 임금 개선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를 완만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구조적인 가계부채 부담과 글로벌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체감 경기의 회복 속도는 지표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시경제 흐름은 미술시장의 유동성과 참여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025년의 고금리와 부채 부담은 미술시장의 허리층인 중산층과 신규 컬렉터의 진입 장벽을 높였고, 이는 중저가 및 신진 작가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반면, 수출 및 신산업 성장의 수혜를 입은 상위 계층은 경기 변동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검증된 가치'에 집중했다. 이는 경매와 갤러리 시장에서 블루칩 작가와 고가 걸작 위주로 거래가 쏠리는 격차를 심화시켰다.

2026년 미술시장 또한 이러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전개될 것이다. 거시 지표는 완만히 회복되더라도 일반 대중의 소비 여력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기에 시장은 폭발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상위 컬렉터와 우량 자본이 주도하는 '질적 성숙기'의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미술시장

Art Market

국내경매 +5.16%

서울옥션, 케이옥션, 마이아트옥션, 아이옥션, 에이옥션, 헤럴드옥션, 라이즈아트, 칸옥션, 토탈아트옥션

2025년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은 2024년의 긴 침체를 딛고 수치상 반등에 성공했으나,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시장 전체의 온전한 회복'보다는 '상위 경매사 중심의 국지적 선행 회복'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국내 9개 경매사의 낙찰총액¹⁾은 1,357억 5,103만 원에서 1,427억 5,252만 원²⁾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하며 외형 상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거래 저변이 넓어진 결과라기보다, 주요 메이저 경매사가 출품 물량을 전략적으로 축소하고 검증된 고가·중가 작품에 화력을 집중한 데 따른 '선택적 반등'으로 해석해야 한다.

낙찰총액 증가는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경매 시장이 고가 작품 위주로 체질을 개선하며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한 결과다. 외부적으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연간 결산에서 경매 부문의 낙찰총액 증가와 50%대 낙찰률 회복을 근거로 '경매 시장의 선행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당사의 데이터 분석 결과 이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서울옥션(50.9%)과 케이옥션(50.1%) 등 메이저 경매사의 낙찰률은 50%대를 회복하며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하위권 경매사들은 낙찰총액이 감소하거나 경매 개최를 중단하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 일부는 낙찰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출품작 축소나 저가 작품 중심의 효과에 그쳐 실질 매출은 줄었다. 결국 이번 반등은 시장 전반의 회복이라기보다 상위 경매사와 소수의 블루칩 작가군(群)으로 수요가 집중된 '쏟림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25년 낙찰총액 산정 시에는 2024년 서울옥션의 오피스텔 분양권과 2025년 장흥 아트 스토리지 이용권 등 비(非)미술품 성격의 로트를 과감히 배제하여 순수 미술품 거래의 본질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지속된 '출품 규모 축소'와 '낙찰총액 방어'라는 상반된 흐름은 2025년 들어 더욱 고착화되었으며, 이는 '양적 위축 속 질적 재편'이라는 흐름이 경매사 간 격차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국내경매의 낙찰총액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 서울옥션, 2025년 7월 22일 CONTEMPORARY ART SALE의 LOT.77, 장흥 아트 스토리지 8평형 1년 이용권 10,000,000원 제외

표1_2025년 국내 경매 결과 요약

| 항목 | '25 | '24 | 증감률/비고 |
|---|--|---------------------------------------|--------------------------|
| 총 낙찰총액 (수수료 미포함) | 1,427억 5,253만 원 | 1,357억 5,104만 원 | 약 5.16% 증가 |
| 총 경매 횟수 | 오프라인 41회 온라인 170회 | 오프라인 41회 온라인 225회 | 오프라인 변동 없음 온라인 55회 감소 |
| 전체 출품작 수 | 19,723점 | 24,831점 | 약 20.5% 감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출품 온라인 출품 | 5,681점 14,042점 | 6,268점 18,563점 | 약 9.4% 감소 약 24.4% 감소 |
| 10억 이상 낙찰 작품 | 9점 | 5점 | 고가 작품 수요 증가 (+80.0%) |
| 최고가 낙찰 작품 | 마르크 샤갈 《Bouquet de Fleurs》 서울옥션 낙찰가 94억 원 | 김환기 《3-V-71 #203》 (서울옥션) 낙찰가 50억 원 | |

표2_2025년 국내 경매 결과 상세

| 2024-2025 비교 | 연도 | '24 | '25 | 증감률 |
|-----------------|--------------|-----|-----------------|-----------------|
| | 국내 경매 총 낙찰총액 | | 135,751,037,000 | 142,752,526,000 |

| 경매사별 | 연도 | 서울옥션 | 케이옥션 | 마이아트옥션 | 아이옥션 | 에이옥션 | 헤럴드옥션 | 라이즈아트 | 칸옥션 | 토탈아트옥션 |
|---------------------------|-----------|----------------|----------------|----------------|---------------|---------------|-------------|---------------|---------------|------------|
| 낙찰총액 | 2024 | 48,806,550,000 | 44,196,455,000 | 10,731,272,000 | 3,983,180,000 | 1,201,270,000 | 391,660,000 | 2,745,730,000 | 1,701,320,000 | 93,600,000 |
| | 2025 | 66,371,000,000 | 58,468,626,000 | 8,055,850,000 | 3,950,980,000 | 1,741,770,000 | 경매개최 X | 2,708,950,000 | 1,455,350,000 | 0 |
| 낙찰총액 (오프라인 /온라인) | 2024_OFF | 44,500,950,000 | 37,609,500,000 | 10,707,000,000 | 3,739,440,000 | - | - | - | 1,701,320,000 | - |
| | 2024_ON | 4,305,600,000 | 6,586,955,000 | 24,272,000 | 243,740,000 | 1,201,270,000 | 391,660,000 | 2,745,730,000 | - | 93,600,000 |
| | 2025_OFF | 61,499,000,000 | 54,223,700,000 | 8,055,850,000 | 3,637,300,000 | - | 경매개최 X | - | 1,455,350,000 | - |
| | 2025_ON | 4,872,000,000 | 4,244,926,000 | 0 | 313,680,000 | 1,741,770,000 | 경매개최 X | 2,708,950,000 | - | 0 |
| 출품작 수 | 2024 | 5,662 | 6,806 | 731 | 3,704 | 1,608 | 1,327 | 2,630 | 751 | 1,612 |
| | 2025 | 5,438 | 3,438 | 542 | 4,257 | 1,958 | 경매개최 X | 1,833 | 794 | 1,463 |
| 낙찰작 수 | 2024 | 2,575 | 2,881 | 393 | 2,291 | 940 | 391 | 1,244 | 397 | 82 |
| | 2025 | 2,768 | 1,721 | 301 | 2,644 | 1,105 | 경매개최 X | 949 | 471 | 0 |
| 낙찰률 | 2024 | 45.5% | 42.3% | 53.8% | 61.9% | 58.5% | 29.5% | 47.3% | 52.9% | 5.1% |
| | 2025 | 50.9% | 50.1% | 55.5% | 62.1% | 56.4% | 경매개최 X | 51.8% | 59.3% | 0.0% |
| 낙찰작 평균가액 | 2024 | 18,954,000 | 15,340,665 | 27,306,036 | 1,738,621 | 1,277,947 | 1,001,688 | 2,207,178 | 4,285,441 | 1,141,463 |
| | 2025 | 23,977,962 | 33,973,635 | 26,763,621 | 1,494,319 | 1,576,262 | 경매개최 X | 2,854,531 | 3,089,915 | - |
| 출품작 (오프라인 /온라인) | 2024_OFF | 1,745 | 1,278 | 560 | 1,934 | - | - | - | 751 | - |
| | 2024_ON | 3,917 | 5,528 | 171 | 1,770 | 1608 | 1,327 | 2,630 | - | 1,612 |
| | 2025_OFF | 1,156 | 1,301 | 533 | 1,897 | - | 경매개최 X | - | 794 | - |
| | 2025_ON | 4,282 | 2,137 | 9 | 2,360 | 1,958 | 경매개최 X | 1,833 | - | 1463 |
| 낙찰작 (오프라인 /온라인) | 2024_OFF | 667 | 772 | 369 | 1,416 | - | - | - | 397 | - |
| | 2024_ON | 1,908 | 2,109 | 24 | 875 | 940 | 391 | 1,244 | - | 82 |
| | 2025_OFF | 647 | 734 | 301 | 1,422 | - | 경매개최 X | - | 471 | - |
| | 2025_ON | 2,121 | 987 | 0 | 1,222 | 1,105 | 경매개최 X | 949 | - | 0 |
| 낙찰률 (오프라인 /온라인) | 2024_OFF | 38.2% | 60.4% | 65.9% | 73.2% | - | - | - | 52.9% | - |
| | 2024_ON | 48.7% | 38.2% | 14.0% | 49.4% | 58.5% | 29.5% | 47.3% | - | 5.1% |
| | 2025_OFF | 56.0% | 56.4% | 56.5% | 75.0% | - | 경매개최 X | - | 59.3% | - |
| | 2025_ON | 49.5% | 46.2% | 0.0% | 51.8% | 56.4% | 경매개최 X | 51.8% | - | 0.0% |
| 경매 개최 수 (오프라인 /온라인) | 2024_오프라인 | 11 | 12 | 4 | 9 | - | - | - | 5 | - |
| | 2024_온라인 | 56 | 78 | 4 | 6 | 13 | 10 | 17 | - | 41 |
| | 2025_오프라인 | 12 | 12 | 4 | 8 | - | 경매개최 X | - | 5 | - |
| | 2025_온라인 | 53 | 46 | 1 | 8 | 15 | 경매개최 X | 16 | - | 31 |

집계 제외(비(非)미술품)

1. LOT. 101, THE PALACE 73 BY RICHARD MEIER, 서울옥션, 제179회 미술품 경매, 2024-06-25
2. LOT.77, 장흥 아트 스토리지 8평형 1년 이용권, 서울옥션, CONTEMPORARY ART SALE, 2025-07-22

낙찰총액

2025년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의 낙찰총액 증가는 메이저 경매사에 대한 수요 집중과 블루칩 작가 중심의 거래 구조가 맞물린 결과로 읽힌다.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은 각각 663억 7,100만 원, 584억 6,862만 원의 낙찰총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9%, 32.3% 상승해 시장의 반등분을 대부분 흡수했다. 두 회사는 김환기, 이중섭 등 국내 거장과 해외 블루칩 작가 작품 비중을 높여 고가 로트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러한 작가 포트폴리오가 낙찰총액 확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비해 마이아트옥션과 칸옥션은 각각 24.9%, 14.5%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아이옥션과 라이즈아트는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에이옥션은 45.0% 증가했으나 절대 규모가 작아 전체 판도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수치는 2025년 낙찰총액 상승이 시장 전반의 동반 성장이라기보다 상위 경매사 중심의 '편중된 회복'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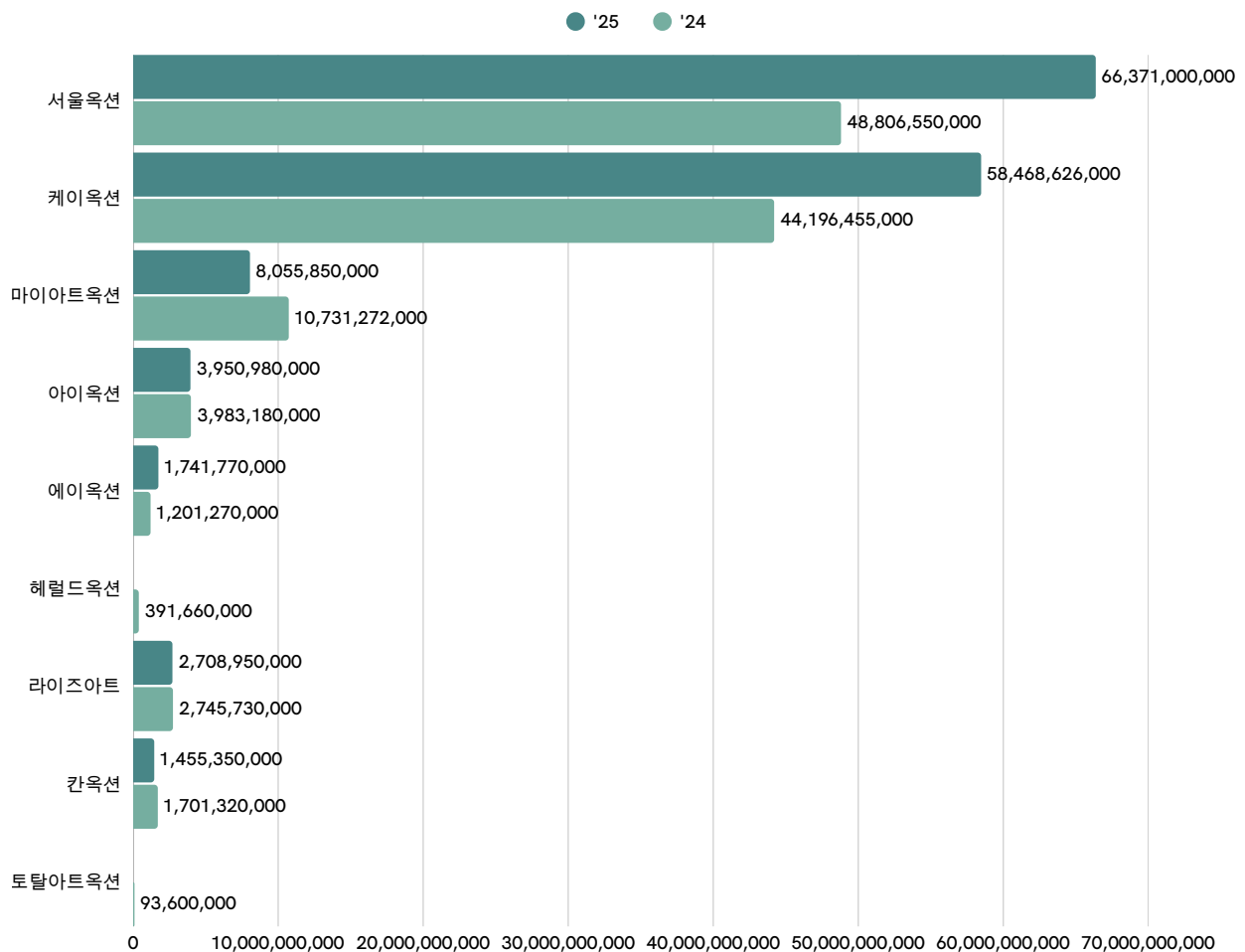


도표1_2025년 국내 경매 낙찰총액 분석 (단위: 원)

낙찰률

2025년 경매 시장은 낙찰률 측면에서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 2024년 낙찰률 하락세와 달리, 주요 경매사들이 '출품 물량 축소'와 '검증된 작품 선별' 전략을 동시에 취하면서 거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서울옥션은 45.5%에서 50.9%로, 케이옥션은 42.3%에서 50.1%로 각각 상승하며 메이저 2사 모두 과반의 낙찰률을 회복했다. 마이아트옥션(53.8%→55.5%)과 아이옥션(61.9%→62.1%) 역시 소폭 상승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반면 토탈아트옥션은 0% 낙찰률을 기록했고, 헤럴드옥션은 경매를 개최하지 않아 중소 경매사의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2025년의 낙찰률 회복은 단순히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의미보다는, 불황형 시장 구조 속에서 경매사가 판매 가능한 로트 위주로 라인업을 보수적으로 재편한 '리스크 관리'의 성과로 해석된다. 이는 거래 실패를 줄이는 일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며, 위탁자들에게 낙찰률이 경매사 선택의 핵심 지표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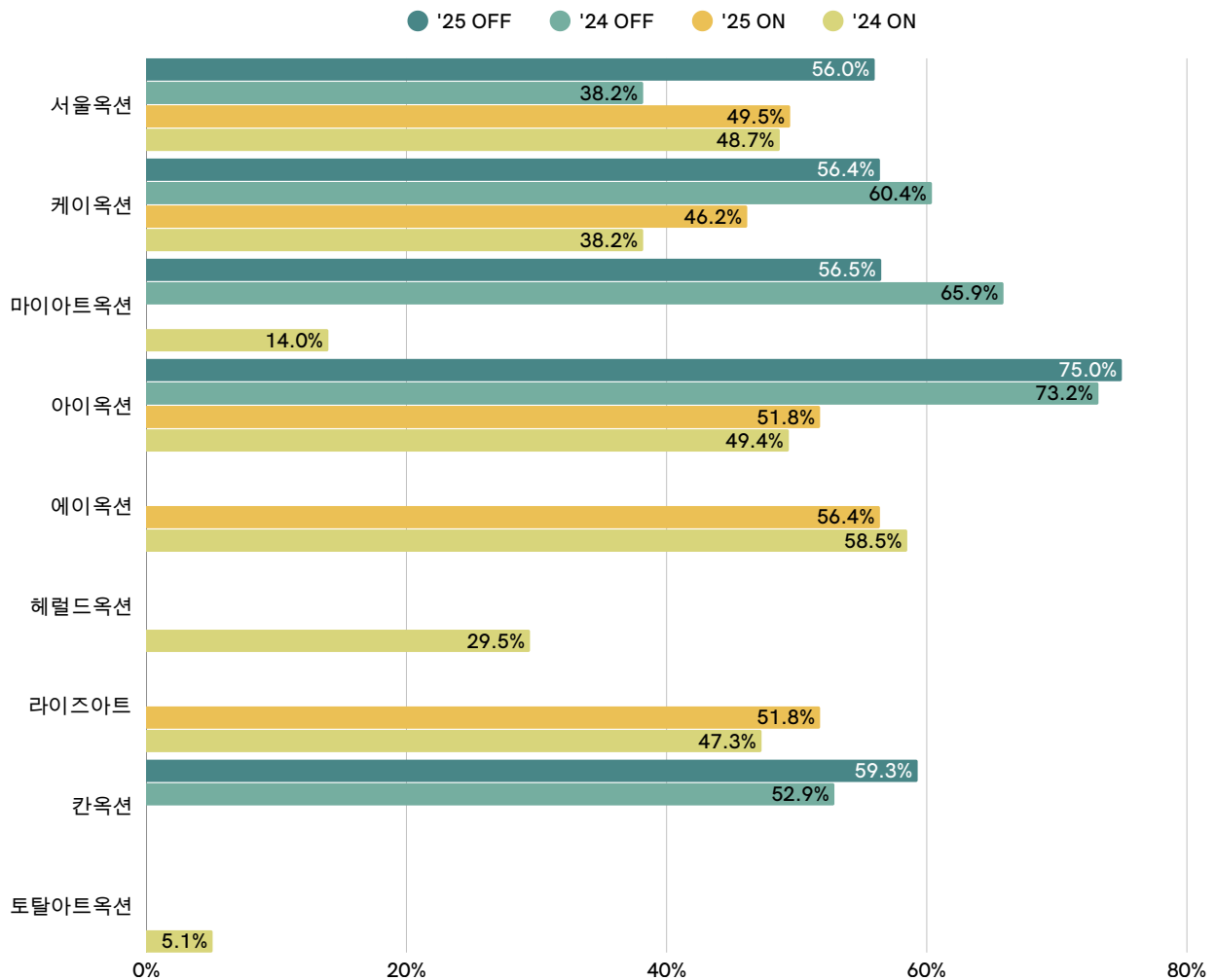


도표2_2025년 국내 경매 낙찰률 분석 (단위: %)

평균 낙찰가액

2025년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의 평균 낙찰가액은 주요 경매사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케이옥션의 평균 낙찰가는 1,534만 원에서 3,397만 원으로 121.5% 급등하며 가장 극적인 변화를 기록했다. 이는 이중섭의 35억 원대 작품을 비롯해 김환기 등 블루칩 대작들이 다수 거래되며 고가 작품 비중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옥션 역시 1,895만 원에서 2,398만 원으로 26.5% 상승하며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마이아트옥션은 2,730만 원에서 2,676만 원으로 2.0% 소폭 하락했고, 아이옥션(174만 원→149만 원)과 칸옥션(429만 원→309만 원)도 각각 14.1%, 27.9% 감소하며 중소 경매사들의 평균 거래 단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고가 작품 거래가 메이저 2사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증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검증된 고가 작품 수요는 상위 경매사로만 유입되는 양극화된 시장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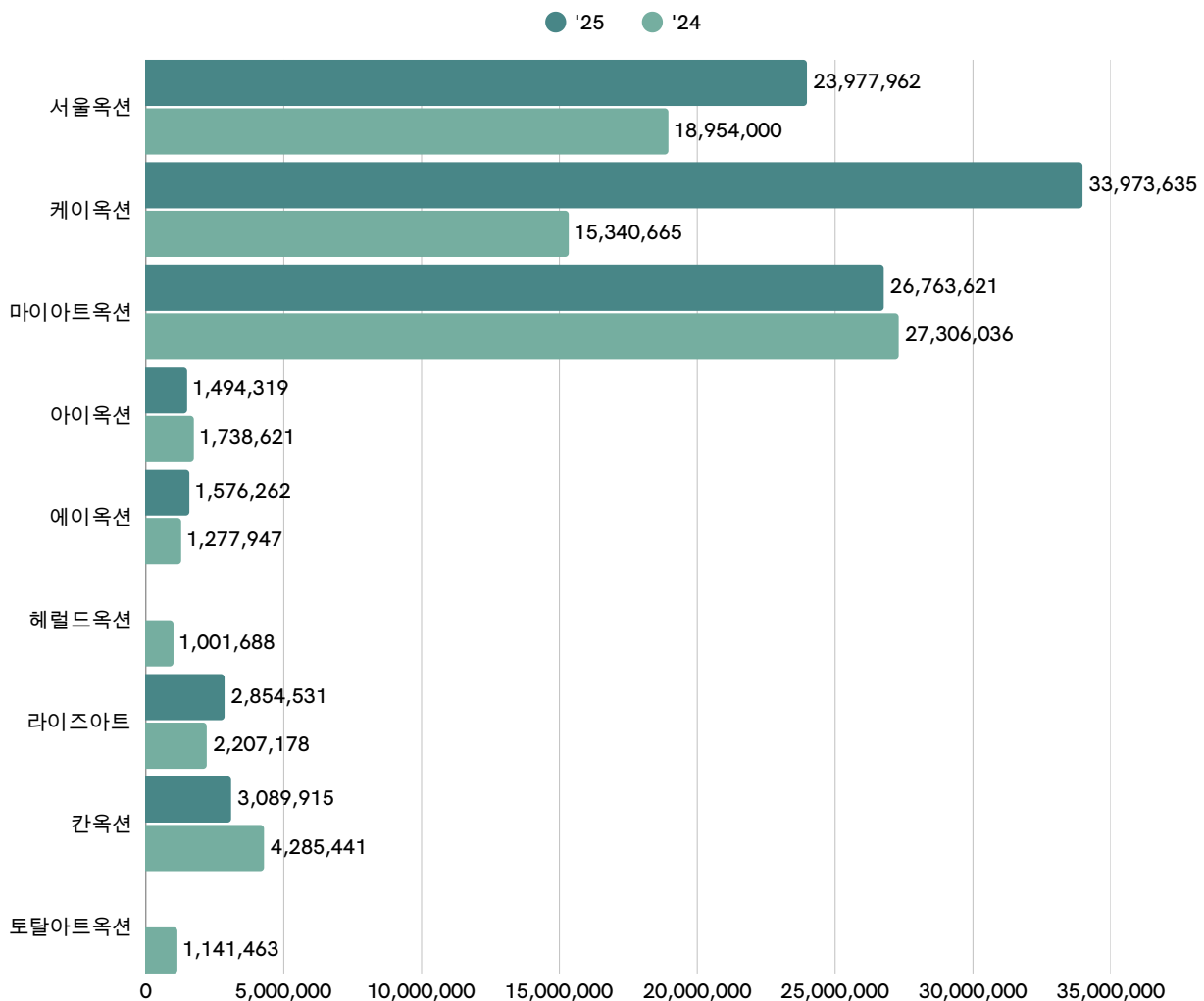


도표3_2025년 국내 경매 평균 낙찰가액 분석 (단위: 원)

온라인 경매

2025년 국내 경매 시장은 오프라인 경매의 비중이 더욱 강화된 반면, 온라인 경매는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메이저 경매사들은 고가 작품이 집중된 오프라인 경매를 통해 실적 반등을 이끌어냈다.

서울옥션은 오프라인 낙찰총액 445억 원에서 615억 원으로 38.2% 급증하며 주도적 성장을 이뤘고, 온라인 부문도 43.1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13.0% 상승해 고른 회복세를 보였다. 케이옥션은 오프라인에서 376억 원 → 542억 원(44.1% ↑)으로 강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온라인은 65.9억 원 → 42.4억 원(35.7% ↓)으로 줄어 고가 작품을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메이저 경매사들은 오프라인 횟수를 유지·소폭 늘리는 대신 온라인을 재편했다. 서울옥션은 오프라인 11회 → 12회, 온라인 56회 → 53회로 조정했고, 케이옥션은 오프라인 12회 유지와 온라인 78회 → 46회 대폭 축소로 매출 중심 세일에 집중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경매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 중심 운영으로 전환하며, 전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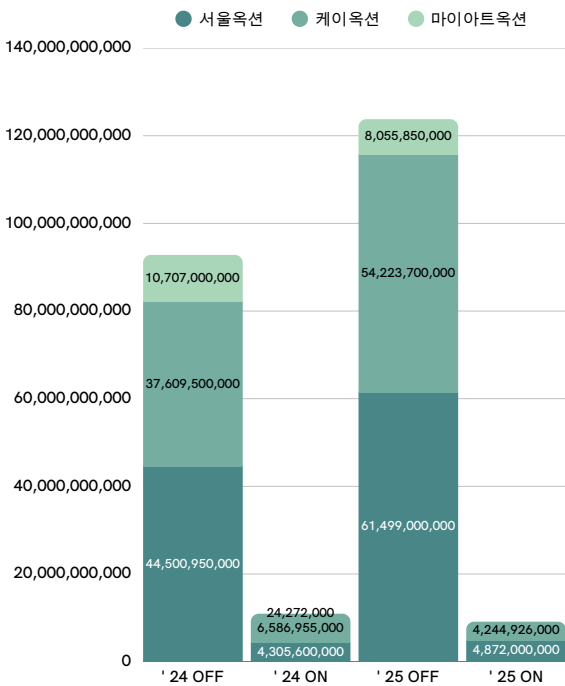


도표4_2025년 국내 경매 온/오프라인 낙찰총액 분석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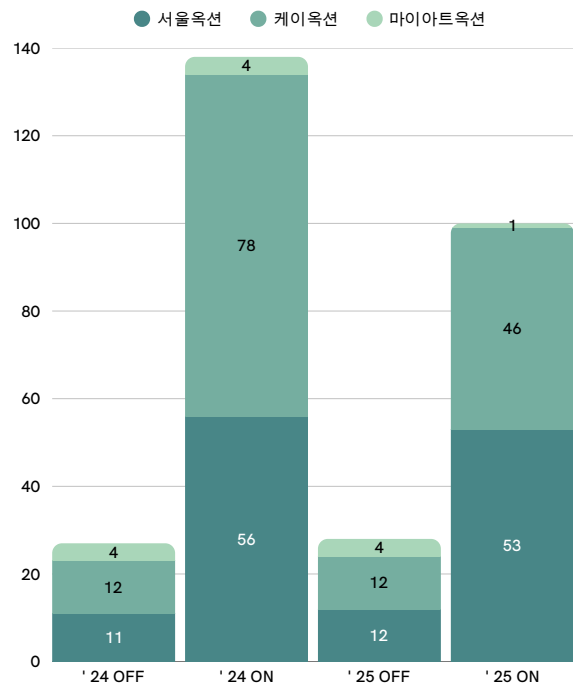


도표5_2025년 국내 경매 온/오프라인 경매횟수 비교 (단위: 회)

최고가 기준 TOP 50

단위 : 원

| 순위 | 2024년 | | 2025년 | |
|----|----------|---------------|----------|---------------|
| | 작가 | 낙찰가 | 작가 | 낙찰가 |
| 1 | 김환기 | 5,000,000,000 | 마르크 샤갈 | 9,400,000,000 |
| 2 | 쿠사마 야요이 | 2,900,000,000 | 마르크 샤갈 | 5,900,000,000 |
| 3 | 이중섭 | 1,400,000,000 | 이중섭 | 3,520,000,000 |
| 4 | 안중근 | 1,300,000,000 | 김환기 | 2,600,000,000 |
| 5 | 박서보 | 1,000,000,000 | 쿠사마 야요이 | 1,900,000,000 |
| 6 | 김창열 | 980,000,000 | 김환기 | 1,880,000,000 |
| 7 | 이우환 | 950,000,000 | 김홍주 | 1,630,000,000 |
| 8 | 김창열 | 950,000,000 | 이우환 | 1,600,000,000 |
| 9 | 표암 강세황 | 850,000,000 | 박수근 | 1,200,000,000 |
| 10 | 윤형근 | 700,000,000 | 안중근 | 940,000,000 |
| 11 | 알렉스 카츠 | 700,000,000 | 이우환 | 910,000,000 |
| 12 | 우향 박래현 | 650,000,000 | 김환기 | 900,000,000 |
| 13 | 윤형근 | 650,000,000 | 김창열 | 860,000,000 |
| 14 | 윤형근 | 630,000,000 | 민속_주생활 | 860,000,000 |
| 15 | 페르난도 보테로 | 610,000,000 | 이우환 | 850,000,000 |
| 16 | 쿠사마 야요이 | 600,000,000 | 이우환 | 850,000,000 |
| 17 | 쿠사마 야요이 | 560,000,000 | 박수근 | 800,000,000 |
| 18 | 윤형근 | 500,000,000 | 김환기 | 780,000,000 |
| 19 | 무라카미 타카시 | 460,000,000 | 김환기 | 780,000,000 |
| 20 | 아야코 록카쿠 | 450,000,000 | 앤디 워홀 | 715,000,000 |
| 21 | 천경자 | 450,000,000 | 김환기 | 700,000,000 |
| 22 | 이우환 | 405,000,000 | 정상화 | 700,000,000 |
| 23 | 우향 박래현 | 400,000,000 | 이우환 | 670,000,000 |
| 24 | 우향 박래현 | 400,000,000 | 박수근 | 650,000,000 |
| 25 | 박수근 | 400,000,000 | 마르크 샤갈 | 600,000,000 |
| 26 | 이우환 | 400,000,000 | 마르크 샤갈 | 600,000,000 |
| 27 | 작가미상_한국화 | 400,000,000 | 이우환 | 580,000,000 |
| 28 | 서병오 | 390,000,000 | 김환기 | 570,000,000 |
| 29 | 이배 | 390,000,000 | 김환기 | 560,000,000 |
| 30 | 마르크 샤갈 | 380,000,000 | 김윤신 | 550,000,000 |
| 31 | 김창열 | 370,000,000 | 이우환 | 530,000,000 |
| 32 | 박서보 | 350,000,000 | 박수근 | 500,000,000 |
| 33 | 이우환 | 340,000,000 | 이우환 | 490,000,000 |
| 34 | 김환기 | 340,000,000 | 안토니 고폴리 | 490,000,000 |
| 35 | 김환기 | 320,000,000 | 데이비드 호크니 | 480,000,000 |
| 36 | 작가미상_한국화 | 320,000,000 | 박서보 | 470,000,000 |
| 37 | 리처드 페티본 | 300,000,000 | 쿠사마 야요이 | 450,000,000 |
| 38 | 윤형근 | 300,000,000 | 아야코 록카쿠 | 450,000,000 |
| 39 | 이배 | 300,000,000 | 앤디 워홀 | 440,000,000 |
| 40 | 단원 김홍도 | 300,000,000 | 아야코 록카쿠 | 435,000,000 |
| 41 | 이배 | 300,000,000 | 유영국 | 430,000,000 |
| 42 | 김환기 | 290,000,000 | 박서보 | 430,000,000 |
| 43 | 겸재 정선 | 290,000,000 | 박서보 | 430,000,000 |
| 44 | 로버트 인디애나 | 290,000,000 | 전광영 | 420,000,000 |
| 45 | 조니 콘도 | 290,000,000 | 박서보 | 420,000,000 |
| 46 | 쿠사마 야요이 | 280,000,000 | 유영국 | 410,000,000 |
| 47 | 아야코 록카쿠 | 280,000,000 | 박서보 | 400,000,000 |
| 48 | 이우환 | 280,000,000 | 이배 | 400,000,000 |
| 49 | 아야코 록카쿠 | 270,000,000 | 유영국 | 400,000,000 |
| 50 | 이우환 | 270,000,000 | 박서보 | 400,000,000 |

낙찰총액 기준 TOP 50

단위 : 원

| 순위 | 2024년 | | 2025년 | |
|----|----------|---------------|----------|----------------|
| | 작가 | 낙찰가 | 작가 | 낙찰가 |
| 1 | 김환기 | 7,390,800,000 | 마르크 샤갈 | 16,801,900,000 |
| 2 | 쿠사마 야요이 | 5,821,200,000 | 김환기 | 11,393,050,000 |
| 3 | 이우환 | 5,641,350,000 | 이우환 | 9,217,630,000 |
| 4 | 이배 | 5,595,490,000 | 이배 | 5,904,700,000 |
| 5 | 김창열 | 5,156,050,000 | 김창열 | 5,535,900,000 |
| 6 | 도자_백자 | 4,541,140,000 | 쿠사마 야요이 | 4,209,750,000 |
| 7 | 윤형근 | 4,372,500,000 | 이중섭 | 3,705,270,000 |
| 8 | 박서보 | 3,501,310,000 | 박서보 | 3,666,800,000 |
| 9 | 전광영 | 3,138,900,000 | 박수근 | 3,450,730,000 |
| 10 | 작가미상_한국화 | 2,441,912,000 | 도자_백자 | 2,863,790,000 |
| 11 | 우항 박래현 | 2,365,300,000 | 하중현 | 2,619,100,000 |
| 12 | 도자_청자 | 2,194,930,000 | 전광영 | 2,563,600,000 |
| 13 | 아야코 룩카쿠 | 1,940,870,000 | 작가미상_한국화 | 2,218,150,000 |
| 14 | 이중섭 | 1,813,000,000 | 앤디 워홀 | 2,160,100,000 |
| 15 | 최영욱 | 1,678,500,000 | 데이비드 호크니 | 2,003,350,000 |
| 16 | 김종학 | 1,677,050,000 | 아야코 룩카쿠 | 1,893,500,000 |
| 17 | 이건용 | 1,372,400,000 | 민속_주생활 | 1,850,300,000 |
| 18 | 이강소 | 1,302,200,000 | 도자_청자 | 1,814,190,000 |
| 19 | 안종근 | 1,300,320,000 | 김홍주 | 1,711,000,000 |
| 20 | 우국원 | 1,237,500,000 | 최영욱 | 1,668,400,000 |
| 21 | 천경자 | 1,108,760,000 | 유영국 | 1,605,150,000 |
| 22 | 이대원 | 1,094,430,000 | 우고 론디노네 | 1,403,000,000 |
| 23 | 이왈중 | 1,040,110,000 | 천경자 | 1,337,750,000 |
| 24 | 알렉스 카츠 | 1,001,000,000 | 정상화 | 1,281,000,000 |
| 25 | 김선우 | 932,150,000 | 요시토모 나라 | 1,227,040,000 |
| 26 | 박생광 | 862,850,000 | 이강소 | 1,220,000,000 |
| 27 | 표암 강세황 | 852,000,000 | 윤형근 | 1,181,000,000 |
| 28 | 겸재 정선 | 779,000,000 | 김종학 | 1,083,850,000 |
| 29 | 하중현 | 702,850,000 | 김선우 | 1,075,360,000 |
| 30 | 쿠라카미 타카시 | 656,000,000 | 이대원 | 972,140,000 |
| 31 | 정영주 | 621,600,000 | 장욱진 | 959,890,000 |
| 32 | 페르난도 보테로 | 610,000,000 | 정영주 | 959,450,000 |
| 33 | 김태호 | 592,400,000 | 우국원 | 949,500,000 |
| 34 | 추사 김정희 | 581,490,000 | 안종근 | 940,000,000 |
| 35 | 도자_분청 | 569,810,000 | 윤보 김기창 | 667,820,000 |
| 36 | 정상화 | 480,400,000 | 김윤신 | 650,000,000 |
| 37 | 살보 | 478,000,000 | 민속_식생활 | 638,040,000 |
| 38 | 단원 김홍도 | 475,000,000 | 변시지 | 632,200,000 |
| 39 | 우고 론디노네 | 456,800,000 | 이왈중 | 594,150,000 |
| 40 | 마르크 샤갈 | 451,140,000 | 백남준 | 590,200,000 |
| 41 | 문형태 | 442,530,000 | 추사 김정희 | 545,970,000 |
| 42 | 로버트 인디애나 | 442,500,000 | 남춘모 | 502,600,000 |
| 43 | 민속_주생활 | 432,400,000 | 안토니 고티 | 490,000,000 |
| 44 | 요시토모 나라 | 426,230,000 | 오치균 | 488,730,000 |
| 45 | 에바 알머슨 | 417,600,000 | 청전 이상범 | 476,100,000 |
| 46 | 오치균 | 404,430,000 | 알렉스 카츠 | 470,100,000 |
| 47 | 하태임 | 401,560,000 | 도서 | 467,390,000 |
| 48 | 박수근 | 400,100,000 | 도자_분청 | 433,620,000 |
| 49 | 서병오 | 390,000,000 | 이건용 | 423,000,000 |
| 50 | 심문섭 | 371,500,000 | 조지 콘도 | 397,000,000 |

미술시장

Art Market

해외경매

+11.1%

크리스티(Christie's), 소더비(Sotheby's), 필립스(Phillips)

2025년 글로벌 경매 시장은 3년간의 하락 국면 마무리하고 '조심스러운 회복' 단계로 진입했으며, 크리스티(Christie's), 소더비(Sotheby's), 필립스(Phillips) 3사의 전체 낙찰총액(미술품·럭셔리·와인 등 포함, 수수료 포함)³⁾은 95억 6천만 달러(약 14조 532억 원)로 2024년 대비 15.5% 증가해 2022년 이후의 감소 흐름을 처음으로 반전시켰다. 다만 수준 자체는 최근 10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며, 회복이 시장 전반의 확장이라기보다 상단 시장중심의 선택적 정상화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술품(Old Masters, Impressionist, Modern, Post-War, Contemporary) 경매만 보면 2025년 낙찰총액은 약 45억 6천만 달러(약 6조 7,032억 원)로 2024년 대비 1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상파 및 근대 미술(Impressionist and Modern Art)은 2025년 낙찰총액 성장률이 31.4%로 가장 높았고, 11월 소더비에서 열린 레오나르드 A. 로더(Leonard A. Lauder) 컬렉션 저녁 세일(Evening Sale)에서 클림트(Gustav Klimt) 작품이 2억 3,640만 달러(약 3,475억 원)에 낙찰된 점이 상승을 일부 견인했다. 그러나 같은 카테고리의 판매 로트 수(Lots Sold)는 2024년 4,490건에서 2025년 2,995건으로 33.3% 감소해, 거래량은 줄고 고가 상위작 중심으로 가치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거래 축소 속 가치 상승 패턴은 '올드 마스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낙찰총액은 29.8% 증가했지만 거래량은 14.8%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후 및 현대 미술(Post-War and Contemporary Art)은 낙찰총액(-2.7%)과 거래량(-9.4%)이 모두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보합 내지 약세 흐름을 보였다. 결국 2025년의 반등은 '많이 팔아서'라기 보다 '비싼 것이 팔려서' 만든 결과다. 검증된 역사적 걸작으로 회귀하는 본능, 그리고 현대 미술의 가격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해외경매의 낙찰총액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Auctions, 2015-25
Auction House - Sales Value (Millions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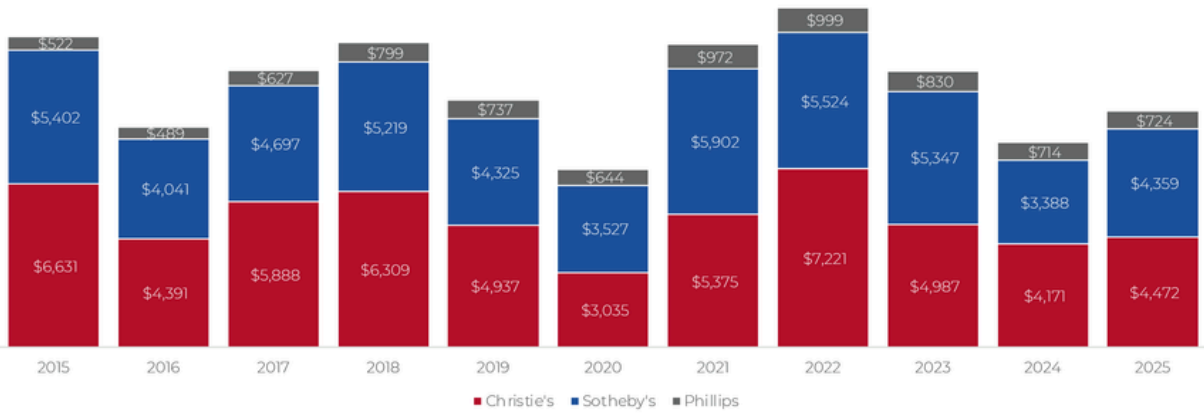


도표6_2025년 해외 경매 경매사별 낙찰총액 분석 (단위: 백만 달러)

Auctions, 2015-25
Number of S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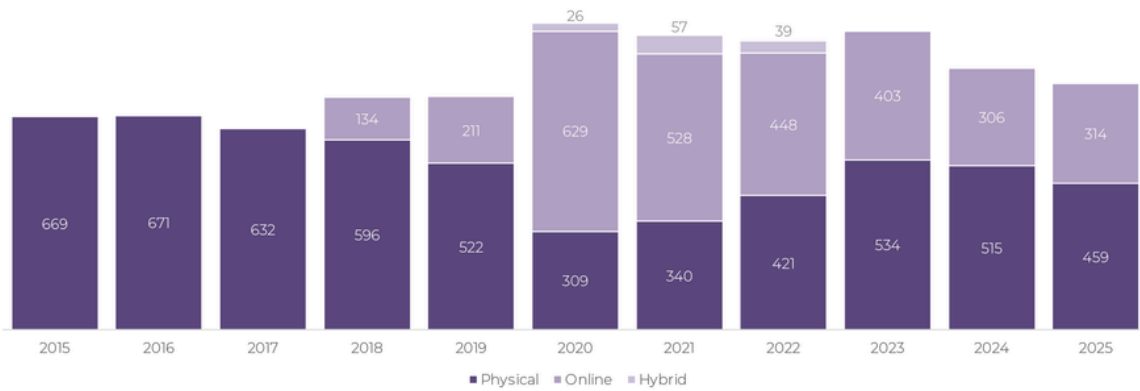


도표7_2025년 해외 경매 채널별 낙찰총액 분석 (단위 : 점)

뉴욕 미술품 경매 매출, 2024년 대비 25.7% 증가

2025년 글로벌 경매 시장에서 뉴욕은 다시 한번 지배적인 위상을 확인했다. 뉴욕의 총 경매 매출은 51억 9천만 달러(약 7조 6,412억 원)로, 2024년 41억 3천만 달러(약 6조 7,771억 원)에서 25.7% 증가했다. 특히 단일 소장품(Single Owner) 컬렉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뉴욕에서만 15억 7천만 달러(약 2조 3,159억 원)가 단일 소장품 세일에서 나왔고, 이는 전년 7억 5,800만 달러(약 1조 1,168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써 뉴욕은 2025년 전 세계 단일 소장품 매출의 68.3%를 차지하며 초고가 경매의 중심지 역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런던 역시 16억 2천만 달러(약 2조 3,863억 원)로 10.8%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유럽 내 핵심 허브로서 안정적인 위상을 유지했다. 반면 홍콩은 네 해 연속 감소 끝에 2.2%의 소폭 하락에 그치며, 14억 달러(약 2조 0,596억 원) 수준에서 '바닥 다지기' 양상을 보였다. 홍콩에서는 모던·컨템포러리 미술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아시아 미술품과 럭셔리 카테고리가 상대적 버팀목 역할을 했다. 파리과 제네바를 포함한 기타 지역은 단일 소장품과 럭셔리 세일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 가는 추세다.

Auctions, 2015-25
Location - Sales Value (Millions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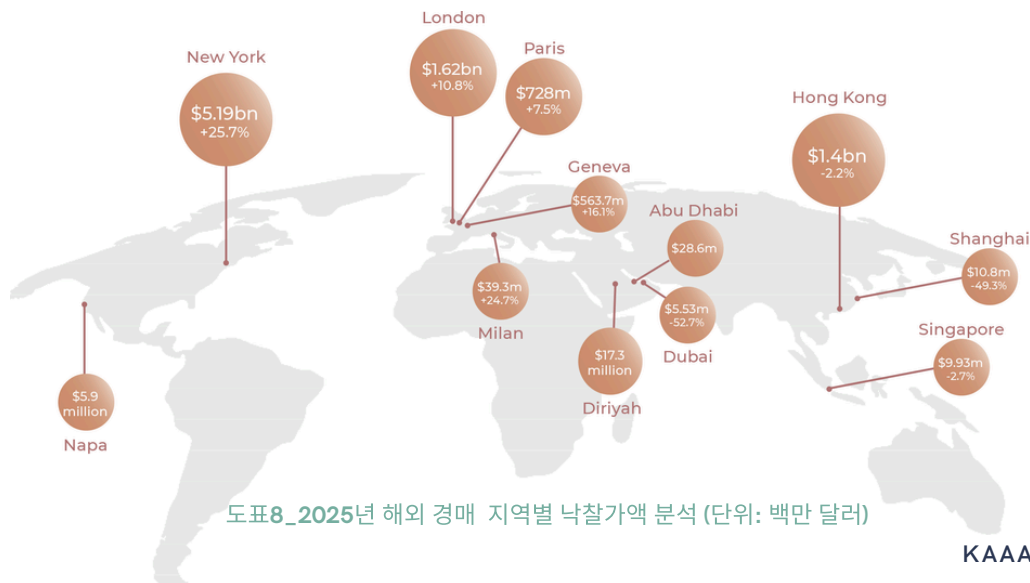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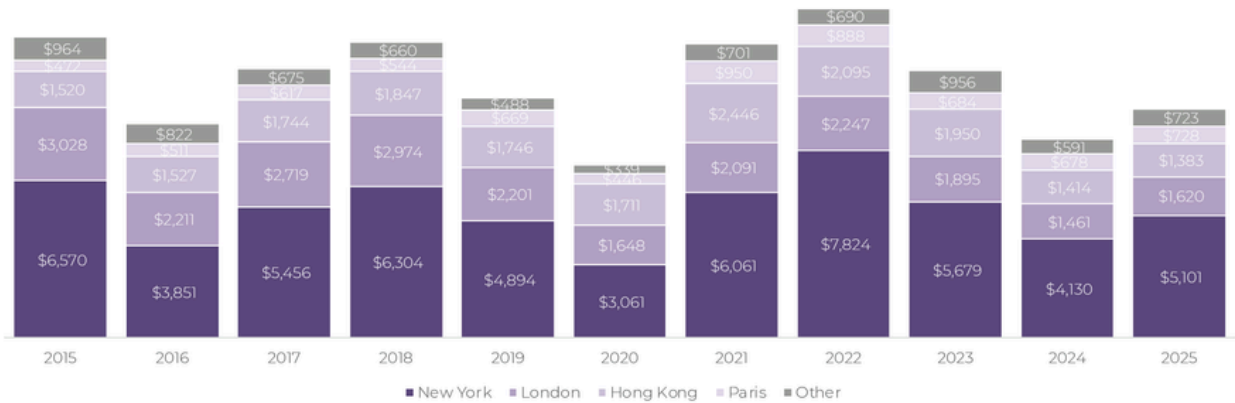


도표8_2025년 해외 경매 지역별 낙찰가액 분석 (단위: 백만 달러)

전후 및 현대미술의 회복력

부문 별로 살펴보면, 현대 미술(Young Contemporary 포함) 경매 매출은 13억 1천만 달러(약 1조 9,297억 원)에서 11억 2천만 달러(약 1조 6,464억 원)로 14.4%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Young Contemporary 부문은 매출이 6,248만 달러(약 918억 원)로 39.1% 급감했고, 평균 가격도 4만 6,135달러(약 6,788만 원)에서 3만 7,983달러(약 5,580만 원)로 하락하며 조정 국면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Young Contemporary 작가 수는 861명으로 10년 평균(656명)을 크게 웃돌아, 세대 자체는 경매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후 미술 시장은 8억 8,050만 달러(약 1조 2,953억 원)에서 7억 3,360만 달러(약 1조 0,784억 원)로 17.7% 감소했다. 앤디 워홀(Andy Warhol, -41.7%),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 -72.9%) 등 핵심 블루칩 작가들의 매출 급감이 전반적인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조안 미첼(Joan Mitchell), 이브 클랭(Yves Klein) 등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며 이 부문 내에서 내부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미술 시장은 2024년 11억 5천만 달러(약 1조 6,905억 원)에서 2025년 13억 8,990만 달러(약 2조 0,527억 원)로 19.4% 성장하며 회복을 주도했다. 피카소는 매출이 23.8% 증가했고, 마크 로스코는 122.2%, 알렉산더 칼더는 108.9%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인상파 미술 시장은 10억 3,949만 달러(약 1조 5,285억 원)로 전년 대비 80.4% 급증했는데, 이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형 작품 세 점이 포함된 로터 컬렉션 출현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올드 마스터 시장도 2억 8,253만 달러(약 4,153억 원)로 68.7% 증가하며, 거래량과 평균 가격 모두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였다.

이처럼 컨템퍼러리·전후 미술이 가격 재조정과 선택적 수요 속에서 조정기를 겪는 동안, 근대·인상파·올드 마스터는 상단 트로피 로트와 단일 소장품 출현을 계기로 강한 회복을 보여주었다. 100만 달러(약 14억 7천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2024년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특히 50만~100만 달러(약 7억 3,500만~14억 7천만 원) 구간은 완만한 조정에 그치며 중간 시장의 저항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Auctions, 2015-25
Auction Collecting Category (Millions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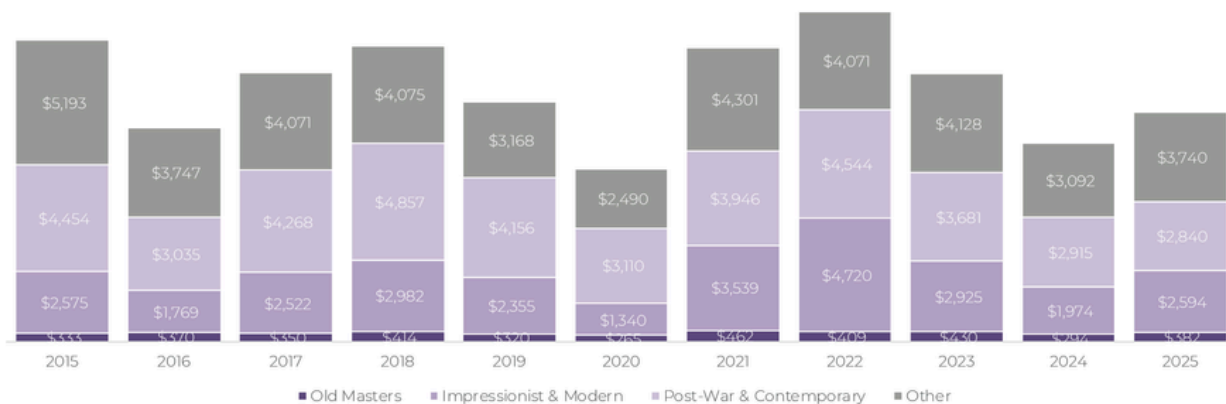


도표9_2025년 해외 경매 부문별 낙찰가액 분석 (단위: 백만 달러)

여성 초현실주의 작가의 약진

2025년에도 여성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약진은 이어졌다.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의 <El sueño (La cama), (The Dream / The Bed)>가 4,700만 달러(약 6,909억 원)에 낙찰되며 기록적인 가격을 경신했고, 이와 더불어 레오노라 캐링턴(Leonora Carrington), 레메디오스 바로(Remedios Varo), 레오노르 피니(Leonor Fini) 등 여성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들 작가의 작품은 근대 미술 카테고리에서 평균 재판매 수익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강한 프로비넌스(Provenance)와 장기 보유 이력이 있는 작품일수록 경매 성과가 돋보였다.

경매이슈

Issue of Auction Market

2025년 글로벌 경매 시장이 '숫자상의 회복, 구조적 재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개별 신진 작가의 깜짝 등장보다 '검증된 걸작(Masterpiece)'과 '메가 컬렉션'이 대거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작품과 컬렉션 사례를 따라가 보면, 어떤 자본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훨씬 선명해진다.

2025년 경매 시장의 최고가는 단연 구스타프 클림트였다. 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Portrait of Elisabeth Lederer)>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2억 3,640만 달러(약 3조 4,751억 원)에 낙찰되며, 2025년 전체 최고가는 물론 모던 아트 경매 역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단 한 점의 작품이 시즌 전체 매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같은 세일에서 출품된 클림트의 풍경화 <꽃이 있는 들판(Blumenwiese)> 역시 8,690만 달러(약 1조 2,764억 원)에 거래되며, 검증된 블루칩 작가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었다.

Gustav KLIMT (1862-1918)

Bildnis Elisabeth Lederer (Portrait of Elisabeth Lederer)
(1914/16)

Lot # 8

Painting

Oil/canvas

180.4 x 130.5 cm

Hammer price: € 177,068,750 (\$ 205,000,000)

Price including buyer's premium: € 204,155,950 (\$ 236,360,000)

Leonard A. Lauder Collector Evening Auction

18 nov 2025

Sotheby's

New York NY, United States

Details

signed "Gustav Klimt" lower right

Literature: Metzger 236 ; Natter 212



크리스티에서는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재스퍼 존스(Jasper Johns)가 상단을 이끌었다. 특히 모네의 대작 수련 연작과 재스퍼 존스의 <깃발(Flags)> 시리즈처럼 미술사적 위상이 확고한 작품들이 5,000만 달러(약 7,350억 원) 이상에 잇달아 낙찰되면서, "불확실한 시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를 산다"는 오래된 격언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회복세는 개별 작품 위탁보다 '단일 소장품 경매(Single-Owner Sale)'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던 & 토마스 사운더스 컬렉션(Jordan and Thomas A. Saunders III Collection)'으로, 소더비 뉴욕에서 진행된 이 올드 마스터 세일은 루이스 멜렌데즈(Luis Meléndez)의 정물화가 510만 달러(약 749억 원)에 낙찰되는 등 약 6,470만 달러(약 9,511억 원)의 총액을 기록하며, 올드 마스터 단일 컬렉션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에 올랐다.

작품 부문 측면에서는 2020~2023년을 휩쓸었던 '울트라 컨템포러리(초현대)' 작가 열기가 한풀 꺾이고, 그 자리를 역사적 의미와 프로비넌스가 뚜렷한 작품들이 채웠다. 안토니오 오바(Antonio Obá)나 노아 데이비스(Noah Davis)처럼 일부 유망 작가가 100만~200만 달러(약 14억 7천만~29억 4천만 원)를 넘는 낙찰가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는 엄격하게 선별된 소수 사례에 가까웠다. 반면 필립스는 시계 부문에서만 2억 9,000만 달러(약 4조 2,630억 원)라는 사상 최고 매출을 올리며, 럭셔리 카테고리가 미술 경매의 새로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검증된 가치 선호' 흐름은 한국 경매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2025년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작가는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이었다. 서울옥션 11월 이브닝 세일에서 샤갈의 <Bouquet de Fleurs(꽃다발)>가 94억 원에 낙찰되며 국내 경매사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고, 같은 세일에 오른 <Paysage de Paris>도 59억 원에 낙찰되면서 한 번의 경매에서 1·2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경매사에서 거래된 샤갈 작품의 낙찰총액은 약 167억 원으로 집계되며, 3년 만에 외국 작가가 국내 연간 낙찰총액 1위를 차지하는 기록도 세웠다.

샤갈의 '한국 편중' 현상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원화 약세로 인해 역외보다 국내 경매에서 샤갈 급 블루칩을 사려는 해외·내국인 컬렉터의 수요가 겹치면서, 서울이 일종의 '가격 매력 구간'을 제공하는 허브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둘째, 경기 전반의 냉각 속에서도 한국 컬렉터층이 여전히 국제적 레퍼런스를 공유하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서양 미술사의 중심에 있는 작가로 위험을 헤치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김환기의 사례 역시 한국 경매 시장에서 '검증된 이름'에 자본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2025년 국내 경매 최고가 상위권은 샤갈에 이어 이중섭·김환기·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가 차례로 자리했다. 9월 K옥션 메이저 경매에서 이중섭의 1954년작 <소와 아동>이 35억 2,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11월 서울옥션 이브닝 세일에서는 김환기의 1957년작 <Jardin>이 26억 원에 거래되며 한국 작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10월 서울옥션 제187회 미술품 경매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Infinity Nets (SHOOX)>가 19억 원에 낙찰되면서, 상위 로트가 모두 '미술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이름'들로 채워지는 구도가 완성되었다.

| | | | |
|---|---|--|--|
|  |  |  |  |
| <p>LOT 10 마르크 샤갈 Bouquet de Fleurs oil on canvas 100.4×73.2cm(40) 1937</p> <hr/> <p>추정가 KRW 9,400,000,000 ~ 15,000,000,000 USD 6,567,000 ~ 10,478,000</p> <hr/> <p>낙찰가 KRW 9,400,000,000</p> | <p>LOT 11 마르크 샤갈 Musiciens et Am... tempera on masonite 41.1×32cm 1981</p> <hr/> <p>추정가 KRW 600,000,000 ~ 900,000,000 USD 420,000 ~ 629,000</p> <hr/> <p>낙찰가 KRW 600,000,000</p> | <p>LOT 12 마르크 샤갈 Paysage de Paris oil and tempera on can... 131.5×162.3cm(100) 1978</p> <hr/> <p>추정가 KRW 6,000,000,000 ~ 9,000,000,000 USD 4,192,000 ~ 6,287,000</p> <hr/> <p>낙찰가 KRW 5,900,000,000</p> | <p>LOT 41 이중섭 소와 아동 종이보드에 유채 29.8×64.5cm 1954</p> <hr/> <p>추정가 별도문의</p> <hr/> <p>낙찰가 KRW 3,520,000,000</p> |

결국 2025년의 국내외 경매 이슈는 모두 같은 메시지로 수렴한다. 시장은 더 이상 “누가 새로 뒀는가”보다 “어떤 이름과 어떤 컬렉션이 끝까지 살아남았는가”에 따라 움직이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클림트와 모네, 샤갈과 이중섭, 김환기가 보여준 최고가 기록과, 사운더스 컬렉션이 입증한 컬렉션 파워는 자본이 ‘모험’ 대신 ‘확신’을 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진 작가의 잠재력에 베팅하던 자금은 미술사적 의의와 시장 이력이 축적된 이름들로 이동하고 있고, 이런 ‘안전 지향적 선별’ 기조는 당분간 글로벌·국내 경매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문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슈

Issue of Art Market

2025년 미술시장 총정리

2025년 미술시장을 단순히 "회복했다"거나 "침체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지표가 반등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본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온도 차가 뚜렷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시장 전체가 함께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가격대·지역별로 각자 다른 흐름을 타는 다층적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해였다.

상반기는 숨고르기, 하반기는 뉴욕의 반전

연초에는 큰 거래가 줄고 분위기가 신중했지만, 11월 뉴욕 메이저 세일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주요 경매에서 다시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며 "좋은 작품에는 여전히 돈이 모인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 열기는 시장 전반으로 퍼지기보다, 확실한 퀄리티와 희소성을 가진 작품에만 집중되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새 이름'보다는 '확실한 이름'으로

2025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함'을 택했다는 점이다. 연간 최고가 리스트는 클림트, 모네, 로스코, 마그리트, 바스키아처럼 이미 미술사적 가치가 굳건한 작가들로 채워졌다. 반면 팬데믹 때 급등했던 초현대미술은 가격과 거래량 모두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얼마나 빨리 오를까"를 따지던 투기적 접근 대신,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컬렉터, 더 까다롭게 고르다

2025년 컬렉터들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단연 '선택성'이다. 단순히 유명 작가라고 해서 작품을 사지 않았고, 어중간한 퀄리티나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에는 지갑을 열지 않았다. 대신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오랜 소장 이력과 분명한 서사를 가진 '단일 소장 컬렉션' 작품에는 과감하게 베풀었다.

확장보다는 생존을 택한 갤러리들

이런 변화는 1차 시장에 큰 압박이 됐다. 2025년에는 중견 갤러리와 위성 공간들이 잇달아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였다. 비싼 임대료와 잦은 페어 참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대신 프로젝트성 운영, 공간 공유, 규모를 줄인 실속형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얼마나 빨리 키울까"보다 "어떻게 오래 버틸까"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됐다.

피곤하지만 놓을 수 없는 아트페어

아트페어에 대한 피로감은 여전했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페어 수는 줄었어도 딜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형 갤러리에는 기획의 장이 되는 반면, 소규모 갤러리에는 고비용·고위험의 무대가 되면서 격차를 더 벌려 놓았다. 이에 많은 갤러리들이 무작정 참가하기보다, 자기 색

깔에 맞는 소수의 페어만 골라 나가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돌아섰다.

걸프와 아시아, 그리고 Z세대의 등장

지역적으로는 걸프와 아시아의 존재감이 커졌다. 걸프 지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다. 아시아 컬렉터 역시 잠시 주춤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매력을 과시하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여기에 Z세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들은 미술을 스니커즈나 디지털 자산과 같은 선상에서 소비하며, 장르 구분보다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새로운 수집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드러난 레버리지의 위험

2025년은 미술품 담보대출 시장의 취약점이 드러난 해이기도 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에서 디폴트 사례가 늘어나며,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가 가격 조정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었다. 반면 보수적으로 운영한 프라이빗뱅크는 큰 타격이 없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과거를 호출하는 두 가지 방식

불확실한 시장은 과거의 권위를 빌려오려 했다. 신진 작가를 거장과 억지로 연결하는 '레퍼런스 베이팅' 마케팅이 늘어났지만, 이는 불안 심리만 자극할 뿐이었다. 반면, 저평가된 작가의 유산(에스테이트)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작업은 신생 갤러리의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의 빈칸을 채우려는 시도였다.

2025년이 남긴 질문은 단순한 등락이 아니었다. 여러 분석은 이 해를 기점으로, "시장이 얼마나 올랐나"보다 "이 환경에서 어디에 서서 어떤 리듬으로 움직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됐다고 지적한다. 컬렉터에게는 자신의 컬렉션이 어떤 시간축과 목적을 갖는지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 갤러리에게는 확장보다 지속 가능성과 관계의 밀도, 프로그램의 설득력을 점검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2025년 미술시장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나누어 주는 시장이 아니라, 준비된 주체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더 정교한 시장으로 향하는 문턱에 가까운 해였다.

2026년 미술시장 전망

2026년 미술시장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은 낮다. 2025년의 흐름을 이어받아 회복되는 곳만 회복되는 '비대칭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거래 규모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좋아지는 않을 것이다.

조용한 플러스, 회복의 중심을 찾아라

전문가들은 2026년을 "과장되지 않은 반등", "조용한 회복"으로 전망한다. 수치 상으로는 플러스지만, 그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시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보다 어떤 카테고리과 지역이 회복을 주도하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

검증된 이름은 여전히 강하다

2026년에도 인상파, 근대미술, 올드 마스터처럼 역사적 가치가 확실한 작가들에게 돈이 몰릴 것이다. 팬데믹 때 급등했던 초현대미술이나 투기성 짙은 분야는 여전히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진 작가와 반짝 유행에 그친 작가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걸프의 부상, 동아시아는 숨고르기

지역적으로는 중동-걸프의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카타르, 아부다비, 사우디의 대형 문화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미술계의 시선과 자본이 이곳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아시아는 급반등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천천히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K-콘텐츠나 디자인, 새로운 컬렉터층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입지를 넓혀갈 것이다.

Z세대가 만드는 새로운 흐름

2025년에 등장한 Z세대 컬렉터들의 영향력은 2026년에 더 구체화될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거래하는 데 익숙하다. 이들의 취향은 하이브리드 전시나 브랜드 협업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술 소비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변동성 큰 시장, 갤러리의 생존법은 '효율'

2026년 경제 환경은 '가다 서다(stop-start)'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나 국제 정세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냉온탕을 오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환경에서 갤러리들은 무리한 확장보다 효율성을 택할 것이다. 비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페어만 나가며, 디지털 도구로 고객 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이 생존의 기본이 될 것이다.

공개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 역할이 나뉜다

거래 방식에서도 역할 분담이 뚜렷해질 것이다. 공개 경매는 여전히 가격의 기준점이 되겠지만 조용히 가격을 조정하거나 고가 작품을 은밀하게 거래할 때는 프라이빗 세일이 더 선호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중저가 시장이나 에디션 작품에서 장기적인 기회를 찾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엔날레의 해: 시장이 주목할 새로운 이름들

2026년은 베니스, 휘트니, 시드니 등 주요 비엔날레가 한 해에 몰린 '슈퍼 시즌'이다. 비상업적 행사지만 최근 비엔날레에서 발굴된 작가가 곧장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하는 패턴은 이제 공식이 되었다. 실제로 2024년 베니스에서 재조명된 작가들이 경매 최고가를 경신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는 고(故) 코요 쿠오가 기획한 "In Minor Keys"를 주제로 거대 담론보다 내밀한 역사와 재평가에 집중할 예정이다. 본 전시뿐 아니라 아마르 칸와르, 로나 심슨,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등 베니스 현지에서 열릴 대형 개인전 또한 컬렉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AI와 저작권, 실험을 넘어선 논쟁

2026년 미술시장에서 AI는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윤리와 권리'의 문제가 될 것이다. 2025년 크리스티의 AI 전용 경매가 작가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고, '바츠 대 앤스로픽' 소송이 15억 달러 합의로 끝나며 저작권 보상의 선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AI 창작물의 거래 자체보다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과 저작권 문제가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면 운영 측면에서는 AI가 갤러리의 리서치 및 관리 도구로 빠르게 정착하겠지만, 컬렉터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드바이저의 역할까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미술시장은 한 방향으로 쏠린 장세라기 보다 각 주체의 기준과 전략이 실제 환경에서 통하는지 시험해 보는 시기에 가깝다. 검증된 블루칩과 역사 지향 카테고리는 계속해서 자본을 끌어들이겠지만, 2020년대 초반 초현대·투기 섹터가 보여준 과열을 그대로 되찾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중동과 아시아, Z세대 컬렉터, 프라이빗 세일과 디지털 채널, 에스테이트와 '재발견' 작가 등은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론되지만, 그 성과가 시장 전체로 고르게 확산되기보다는 준비된 주체에게 더 크게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이 "어떤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지"를 드러낸 해였다면, 2026년은 어떤 선택과 설계가 실제 조건 속에서 유효한지 검증되는 해에 가까운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026 주요 아트페어 일정표

| 월 | 아트페어명 | 기간 | 장소 |
|------------------|------------------------------|----------------------------------|---------------------------------------|
| 1월 | LA Art Show | Jan 7-11 | LA Convention Center, USA |
| | ONE ART Taipei | Jan 16-18 | Taipei, Taiwan |
| | London Art Fair | Jan 21-25 | London Business Design Centre, UK |
| | FOG Design+Art | Jan 21-25 | San Francisco Fort Mason, USA |
| | ART SG | Jan 23-25 | Singapore Marina Bay Sands, Singapore |
| | The Winter Show | Jan 23 - Feb 1 | New York Park Avenue Armory, USA |
| | Brafa Art Fair | Jan 25 - Feb 1 | Brussels Expo, Belgium |
| 2월 | Affordable Art Fair Brussels | Feb 4-8 | Brussels Tour & Taxis, Belgium |
| | Zona Maco | Feb 4-8 | Mexico City Citibanamex, Mexico |
| | Art Basel Qatar | Feb 5-7 | Doha Msheireb Downtown, Qatar |
| | India Art Fair | Feb 5-8 | New Delhi NSIC Grounds, India |
| | 1-54 Marrakech | Feb 7-8 | Marrakech La Mamounia, Morocco |
| | Luneta Art Fair | Feb 7-8 | Manila Rizal Park, Philippines |
| | Felix Art Fair | Feb 25 - Mar 1 | Los Angeles Hollywood Roosevelt, USA |
| | ENZO | Feb 25-28 | 1634 W Temple, Los Angeles, USA |
| | Frieze Los Angeles | Feb 26 - Mar 1 | Santa Monica Airport, USA |
| | Post-Fair | Feb 26-28 | Santa Monica 5th St, USA |
| 3월 | Affordable Art Fair London | Mar 4-8 | London Evolution, UK |
| | ARCOmadrid | Mar 4-8 | Madrid IFEMA, Spain |
| | Hybrid Art Fair10 | Mar 5-8 | Madrid Petit Palace, Spain |
| | Art Fair Tokyo | Mar 13-15 | Tokyo International Forum, Japan |
| | Affordable Art Fair New York | Mar 18-22 | New York Starrett-Lehigh, USA |
| | Outsider Art Fair | Mar 19-22 | New York Metropolitan Pavilion, USA |
| | TEFAF Maastricht | Mar 14-19 | Maastricht MECC, Netherlands |
| | Art Basel Hong Kong | Mar 27-29 | Hong Kong HKCEC, Hong Kong |
| 4월 | Salon du dessin | Mar 25-30 | Paris Palais Brongniart, France |
| | 부산 국제 화랑 아트페어 (BAMA) | Apr 2-5 | Busan BEXCO, Korea |
| | ART OnO | Apr 3-5 | Seoul SETEC, Korea |
| | 화랑미술제 (Galleries Art Fair) | Apr 8-12 | Seoul COEX C/D Hall, Korea |
| | SP-Arte | Apr 8-12 | São Paulo Bienal Pavilion, Brazil |
| | Artexpo New York | Apr 9-12 | New York Pier 36, USA |
| | EXPO Chicago | Apr 9-12 | Chicago Navy Pier, USA |
| IFPDA Print Fair | Apr 9-12 | New York Park Avenue Armory, USA | |

| 월 | 아트페어명 | 기간 | 장소 |
|------------------|-------------------------------|--------------------|--|
| 4월 | Affordable Art Fair Berlin | Apr 16-19 | Berlin Arena, Germany |
| | Dallas Invitational | Apr 16-18 | Dallas Rosewood Mansion, USA |
| | Art Dubai | Apr 17-19 | Dubai Madinat Jumeirah, UAE |
| | Art Düsseldorf | Apr 17-19 | Düsseldorf Areal Böhler, Germany |
| | 브리즈 아트페어 (Breeze Art Fair) | Apr 17-19 | Seoul Dongdeok Building, Korea |
| | Art Brussels | Apr 23-26 | Brussels Expo Hall 5, Belgium |
| | World Art Dubai | Apr 23-26 | Dubai World Trade Centre, UAE |
| 뱅크 아트페어 in SETEC | Apr 30 - May 3 | Seoul SETEC, Korea | |
| 5월 | Frieze New York | May 13-17 | New York The Shed, USA |
| | 1-54 New York | May 13-17 | New York (TBA), USA |
| | NADA New York | May 13-17 | New York Starrett-Lehigh, USA |
| | Independent New York | May 14-17 | New York Pier 36, USA |
| | TEFAF New York | May 15-19 | New York Park Avenue Armory, USA |
| | Affordable Art Fair London | May 6-20 | London Hampstead, UK |
| | Affordable Art Fair Brisbane | May 7-10 | Brisbane Showgrounds, Australia |
| | Affordable Art Fair Austin | May 14-17 | Austin Palmer Center, USA |
| | Affordable Art Fair Hong Kong | May 22-25 | Hong Kong HKCEC, Hong Kong |
| | Art Busan | May 22-24 | Busan BEXCO, Korea |
| | Art Vancouver | May 28-31 | Vancouver Convention Centre, Canada |
| | Affordable Art Fair Vienna | May 28-31 | Vienna, Austria |
| 6월 | Liste Art Fair Basel | Jun 15-21 | Basel Messe Hall 1.1, Switzerland |
| | Art Basel Switzerland | Jun 18-21 | Basel Messe, Switzerland |
| | 울산국제아트페어 (UIAF) | Jun 18-21 | Ulsan UECO, Korea |
| 7월 | 어반 브레이크 (URBAN BREAK) | Jul 30 - Aug 2 | Seoul COEX D Hall, Korea |
| 8월 | Affordable Art Fair Melbourne | Aug 28-31 | Melbourne Royal Exhibition Building, Australia |
| 9월 | Frieze Seoul | Sep 2-5 | Seoul COEX, Korea |
| | Kiaf Seoul | Sep 2-6 | Seoul COEX, Korea |
| | Sydney Contemporary | Sep 3-6 | Sydney Carriageworks, Australia |
| | Tokyo Gendai | Sep 11-13 | Yokohama PACIFICO, Japan |
| | Fine Arts Paris | Sep 19-23 | Paris Grand Palais, France |
| | The Armory Show | Sep 24-27 | New York Javits Center, USA |
| | Independent 20th Century | Sep 24-27 | New York Sotheby's Breuer, USA |
| | Affordable Art Fair New York | Sep (TBA) | New York Starrett-Lehigh, USA |

| 월 | 아트페어명 | 기간 | 장소 |
|-----------|-------------------------------------|----------------------------|--|
| 9월 | Daegu International Art Fair (DIAF) | Sep-Oct (TBA) | Daegu EXCO, Korea |
| 10월 | Art Taipei | Oct (TBA) | Taipei TWTC, Taiwan |
| | Atlanta Art Fair | Oct 1-4 | Atlanta Pullman Yards, USA |
| | Affordable Art Fair Stockholm | Oct 2-5 | Stockholm Nacka Strandsmässan, Sweden |
| | Frieze London & Masters | Oct 14-18 | London Regent's Park, UK |
| | TEFAF New York | May 15-19 | New York Park Avenue Armory, USA |
| | Affordable Art Fair London | Oct 16-19 | London Hampstead, UK |
| | Paris Internationale | Oct 21-25 | Paris Champs-Élysées, France |
| | Art Basel Paris | Oct 23-25 | Paris Grand Palais, France |
| | Affordable Art Fair Boston | Oct 23-26 | Boston SoWa Power Station, USA |
| Artissima | Oct 30 - Nov 1 | Turin OVAL Lingotto, Italy | |
| 11월 | Art Cologne | Nov 5-8 | Cologne Koelnmesse, Germany |
| | Art Collaboration Kyoto (ACK) | Nov 7-9 | 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Japan |
| | ADAA Fair | Nov 12-16 | New York Park Avenue Armory, USA |
| | Paris Photo | Nov 12-15 | Paris Grand Palais, France |
| | Affordable Art Fair Amsterdam | Nov 25-29 | Amsterdam De Kromhouthal, Netherlands |
| 12월 | Red Dot Miami | Dec 2-6 | Miami Mana Wynwood, USA |
| | Art Basel Miami Beach | Dec 4-6 |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USA |

2026 주요 미술전시회 일정표

| 월 | 전시명 | 기간 | 장소 |
|-----|---|---------------------|---------------------------|
| 2월 | Tino Sehgal / Collection | Feb 26-Jun 28 | 리움미술관, 서울 |
| | YBA & Beyond: British Art in the 90s from the Tate Collection | Feb 11-May 11 | 국립신미술관, 도쿄 |
| 3월 | Damien Hirst 회고전 | Mar 20-Jun 28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 | 김윤신 회고전 | Mar 17-Jun 28 | 호암미술관, 경기 |
| | Sorayama: Light, Reflection, Transparency | Mar 14-May 31 | Creative Museum Tokyo, 도쿄 |
| | Raphael: Sublime Poetry | Mar 29-Jun 28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
| 4월 | 이배 전 | TBA | 뮤지엄 산, 원주 |
| | Marcel Duchamp 회고전 | Apr 12-Aug 15 | MoMA, 뉴욕 |
| | Derrick Adams: View Master | Apr 16-Sep 7 | ICA Boston, 보스턴 |
| | MA, FIVE FROM THE COLLECTION | Apr 1-Aug 2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서울 |
| | 방혜자 조명 전시 | TBA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
| | Hanae Mori, Vital Type: The 100th Anniversary of Birth | Apr 15-Jul 6 | 국립신미술관, 도쿄 |
| | Andrew Wyeth: Boundaries or Windows | Apr 28-Jul 5 | 도쿄도 미술관, 도쿄 |
| | Ron Mueck 전시 | Apr 29-Sep 23 | Mori Art Museum, 도쿄 |
| 5월 | 퐁피두 센터 서울 개관 프로그램 | TBA | 퐁피두 센터 서울, 서울 |
| | 유영국 회고전 | May 14-Oct 18 | 서울시립미술관 |
| | Stan Douglas 전시 | May 14-Jan 10, 2027 | MACBA, 바르셀로나 |
| | 1세대 여성 설치미술 그룹전 | May 5-Nov 29 | 리움미술관, 서울 |
| 6월 | Picasso, through the Eyes of Paul Smith: Adventure of Playful Spirits | Jun 10-Sep 21 | 국립신미술관, 도쿄 |
| | Carsten Höller 전시 | Jun 6-Oct 11 | UCCA, 베이징 |
| | Frida Kahlo 회고전 | Jun 25-Jan 3, 2027 | Tate Modern, 런던 |
| | 1세대 여성 설치미술 그룹전 | May 5-Nov 29 | 리움미술관, 서울 |
| 7월 | 과천관 40주년 프로젝트: 빛의 상상들 | Jul 21-Nov 1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 8월 | 서도호 전시 | TBA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 | 부산비엔날레 2026 | TBA | 부산 일대 전시장 |
| | Johannes Vermeer 전시 | Aug 21-Sep 27 | 나카노시마 미술관, 오사카 |
| 9월 | Jonas Wood 개인전 | Sep 1-Feb 28, 2027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서울 |
| | 구정아 개인전 | TBA | 리움미술관, 서울 |
| | 아트스펙트럼 2026 | TBA | 호암미술관, 경기 |
| | 광주비엔날레 2026 | TBA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 |
| | Refik Anadol 미디어 프로젝트 | TBA | M+ 파사드, 홍콩 |
| 10월 | Mariko Mori 전시 | Oct 31-Mar 28, 2027 | Mori Art Museum, 도쿄 |
| 11월 | Sophie Calle 개인전 | TBA | Hamburger Bahnhof, 베를린 |
| | Georgia O'Keeffe 전시 | TBA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26년 주목해야 할 10명의 국내 예술가

거장 및 원로 그룹 (미술사적 가치와 안정성)

- 유영국 (Yoo Young-kuk, 1916-2002):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 작가.
- 이배 (Lee Bae, b.1956): '숯'이라는 매체를 통해 한국적 여백과 현대적 추상을 결합하며 현재 글로벌 세컨더리 마켓에서도 강력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음.
- 성능경 (Sung Neung Kyung, b.1944): 한국 전위예술과 개념미술의 거장으로, 최근 구겐하임 전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재조명

글로벌 스타 그룹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

- 양혜규 (Haegue Yang, b.1971): 베니스 비엔날레, 모마(MoMA) 전시 등 생존 작가 중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 대표 작가.
- 강서경 (Suki Seokyeong Kang, b.1977):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작가.
- 박찬경 (Park Chan-kyong, b.1965): 한국의 역사와 민속적 요소를 현대 미디어 아트로 승화시킨 거장으로, 비평적 중요도가 높음

동시대 및 차세대 그룹 (미래 가치와 트렌드)

- 김영은 (Kim Young-eun, b.1980): 2025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로, 현재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임민옥 (Minouk Lim, b.1968): 설치,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해석하는 작가
- 정은영 (siren eun young jung, b.1974): 젠더와 전통 공연 예술을 결합한 독창적 작업으로 국내외 비엔날레와 전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김희천 (Kim Heecheon, b.1989): 디지털 환경과 가상 세계를 다루는 포스트 인터넷 세대의 선두주자로, 젊은 컬렉터들과 글로벌 미디어 아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

2026년 주목해야 할 10명의 해외 예술가⁴

게르하르트 리히터 (Gerhard Richter, b.1932)

신디 셔먼 (Cindy Sherman, b.1954)

볼프강 틸만스 (Wolfgang Tillmans, b.1968)

게오르크 바젤리츠 (Georg Baselitz, b.1938)

브루스 노먼 (Bruce Nauman, b.1941)

쿠사마 야요이 (Yayoi Kusama, b.1929)

로제마리 트로켈 (Rosemarie Trockel, b.1952)

낸 골드인 (Nan Goldin, b.1953)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b.1937)

토마스 루프 (Thomas Ruff, b.1958)

4) 2025년 12월 ARTFACTS LIVING ARTISTS 순위 참고

카이 인사이트

KAAAI Insight

경매사 독점 구조의 해법, 세컨더리 마켓 역량 강화를 통한 미술 시장 수요 재편

현재 한국 미술시장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1차 시장(갤러리)과 대형 경매사 위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어, 그 사이를 잇는 건강한 세컨더리 마켓(재유통 시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 인사동이 중고 작품 거래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지만 임대료 상승과 소비 패턴 변화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신생 갤러리들도 여전히 1차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미술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을 막으며, 이미 시장에 풀린 작품들의 적절한 재유통이 어려워지고 있다.

작품 유통 채널이 부족한 탓에 많은 컬렉터가 적절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곤란을 겪는다. 최근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직거래 마켓들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작품의 신뢰도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전문적인 검증이나 컨디션 평가 없이 이뤄지는 거래는 미술품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내 미술품 유통이 단 두 개의 대형 경매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들 경매에 선별되지 못한 수많은 양질의 작품들은 갈 곳을 잃고 온라인 시장을 떠돌거나,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없이 '처분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매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중한 미술 자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소모되는 이 구조는 작가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며, 시장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세컨더리 화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단순히 작품을 유통하는 중개 단계를 넘어, 한국 근현대 미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활약하는 세컨더리 화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컬렉터들이 당근마켓 같은 비전문적 경로로 소중한 작품을 처분하지 않도록, 감안(鑑眼)과 풍부한 거래 이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컨더리 화랑은 작품의 컨디션, 프로비넌스,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정한 가치를 제시하며,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현재 국내 주요 경매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정체되고 국내 거장들의 대작마저 해외 경매사에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에서, 역량 있는 세컨더리 화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들은 경매사에 과도하게 쏠린 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뿐 아니라, 저평가된 작품의 가치를 재 발굴해 컬렉터들에게 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정교한 가치 평가를 통해 컬렉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이러한 순기능은 특정 작가와 경매 시장에 편중된 한국 미술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계 전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결정적 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 및 인용자료

Reference

- Art Basel. 2025. "Six art market trends to watch in 2026."
- Art Basel & UBS. 2024. 『The Art Market Report 2024』
- 2025. 『Global Collecting Report 2025』
 - 2025. 『The Art Basel and UBS Survey of Global Collecting 2025』
- Art Fair Mag. 2025. "Art fair calendar."
- art-collecting.com. 2026. "U.S. & international art fairs 2025/2026."
- Artdependence. 2025. "Sotheby's projects 2025 consolidated sales of \$7 billion."
- Artnet News. 2025. "3 Predictions for the Art Market in 2026."
- 2025. "2025's Top Auction Moments."
 - 2025. "Art Market Outlook for 2026 (Art Market Minute)."
 - 2025. "Here Are the 10 Most Expensive Artworks Sold at Auction in 2025."
 - 2025. "How Artist Estates Became Fertile Ground for Young Dealers."
 - 2025. "Introducing the Intelligence Report: The Mid-Year Report 2025."
 - 2025. "Trophy Art Bounced Back in 2025. Here Are the Biggest Winners." Artnet News.
 - 2025. "An up-to-the-minute list of all the art fairs taking place in 2026." Artnet News.
- Artsy. 2025. "5 Themes That Will Define the Art Market in 2026."
- 2025. "16 New Auction Records Set in November 2025."
 - 2025. "The 10 Most Expensive Auction Works in 2025."
 - 2026. "11 Must-See Museum Exhibitions in 2026."
- ArtTactic. 2025. 『The Art Market 2025: A Year in Review』
- 2025. 『RawFacts: Auction Review 2025』
- CEIC Data. n.d. 『South Korea Household Debt』
- Deloitte Private & ArtTactic. 2023. 『Art & Finance Report』
- Howden Group. 2025. 『The current state of the 2025 global art market』
- IDEX Online. 2025. "Phillips Auctions a Record \$290m Watches in 2025." IDEX Online.
- K-ArtNow. 2025. "Leeum & Hoam Museum of Art 2026 Exhibition Plans."
- 2026. "Selected Korean art fairs in 2026: 아트페어로 살펴보는 2026년 한국 미술시장."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5. "Current Economic Situation, November 2025."
- MutualArt. 2025. "2025 Art Market Year in Review."
- MyArtBroker. 2025-2026. "Five Key Art Market Predictions in 2026."
- 2025-2026. "Art Market Forecast 2026: Why Recovery Will Disappoint."
- OECD. 2024.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4 Issue 2: Korea』
- 2025. 『Korea: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1』 .
- Observer. 2025. "A Calibrated Market: How 2025 Shaped the Landscape for Collectors in 2026."
- 2025. "Art Fairs at a Turning Point: Why Galleries Can't Afford to Go—but Can't Afford to Stop."
- Seoul Economic Daily. 2025. "Korea Art Market Outlook Remains Bleak for 2025."
- Sotheby's. 2025. "The 10 Most Valuable Lots Sold by Sotheby's in 2025."
- The Art Newspaper. 2025. "Art market 2025 review: all eyes on the Gulf as Trump destabilises global order."
- 2025. "Art market 2026 predictions: underwhelming rebound and another Frieze fair."
 - 2025. "How much should art cost? The pitfalls and paradoxes of pricing works."
 - 2025. "Sotheby's secures most valuable single owner collection of Old Master paintings to come to auction."
 - 2026. "The must-see exhibitions of 2026: from Duchamp in New York to Baldessari in Beijing."
- The Korea Herald. 2026. "What to expect from art museums in 2026."
- The Korea Times. 2025. "BOK raises 2026 growth outlook to 1.8% as exports show strength."



Korea Art
Authentication Appraisal Inc.

2025년 미술시장 분석보고서

2026. 1. 21.

데이터 분석 및 연구, 자료 수집
EMI 연구소 | KAAAI 기업부설연구소

마켓 애널리스트
이호숙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카이 DBA(Database Administrator)
박지성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연구원

에디터
이호숙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정연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박지성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연구원

발행처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KAAAI)

발행인
이호숙,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47 부남빌딩 3층
Korea Art Authentication & Appraisal Inc.
3F, 447 Samil-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www.appraisalk.kr
appraisal@appraisalk.kr
+82-2-739-6955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Report Disclaimer

보고서의 정보는 여러 출처로부터 기반합니다. 정보 수집과 변환 방법에 따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의견은 해당 시점에 관한 것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분석과 관점의 제시, 내용 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 사용 권한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 또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 시 문의 또는 출처를 밝히고 사용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배포, 복제, 편집에 사용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